

# 광주 시페퍼스 “올해 목표는 10승”

2022-23시즌 언론 간담회

김형실 감독 “신생팀 이미지 벗고 페퍼만의 팀 컬러 보여주겠다”  
리드 “실력 100% 발휘하겠다”  
어르형 “많이 배워야죠”



“10승 합니다” 광주 시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2022-23시즌을 앞두고 4일 광주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동언 단장 등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김 단장(왼쪽부터), 김형실 감독, 이한비-이고은-어르형-니아 리드.

“올해 목표는 10승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팬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광주 시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2022-23시즌을 앞두고 4일 광주시체육회 중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 팬과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는 김동언 시페퍼스 단장, 주장 이한비(Outside Hitter, 레프트), 새얼굴 이고은(센터) 니아 리드(Opposite Hitter-라이트), 체렌람당 어르형(미들블로커-센터)이 참석해 올시즌 각오를 밝혔다.

김형실 감독은 “지난해 5승이 목표였는데 올해는 10승으로 잡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겠다”면서 “신생팀 이미지를 벗고 명실상부한 프로팀 모습을 보여주고, 페퍼만의 팀 컬러를 코트에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페퍼는 올시즌 전력을 대폭 보강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자유계약선수(FA) 이고은을 영입한데 이어 고교 최다이 어르형을 뽑았다. 외국인 선수 니아 리드도 수혈했다. 사실상 주전급 6명 가운데 2명이 바뀌었다.

이고은의 가세로 이현과 구술 등 세터진 포지션 변경이 눈길을 끈다. 이현은 ‘서베로(서브+리베로)’로 전향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다. 서브 강점과 수비력을 활용하기 위한 김 감독의 포석이다. 구술은 공격수 변신을 위해 훈련하고 있다.

페퍼스는 공수의 기본인 서브와 리시브를 탄탄히 다지고 있다. 지난해 경기마다 고전했던 약점이다. 페퍼스는 이번 시즌에 대비해 매일 1시간 동안 서브와 리시브를 집중 훈련했다고 한다. 파워 서브를 받아내기 위해 서브 마신까지 구입해 훈련하고 있다.

그동안 영입 선수들과 팀웍을 구축한 선수들은 의욕과 자신감을 차였다. 이한비는 “충분히 10승 가능하다. 선수들이 그 이상의 결과도 갈망하고 있다”면서 “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선수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베테랑 이고은은 조울수 역할을 자임했다.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에서 기록을 많이 탄다. 적절한 경기감각과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육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나치게 침체되거나, 과도하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고은은 2013~2014시즌 전체 3순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프로 데뷔해 9시즌을 뛰었다. 9억9000만원(연봉 3억원, 옵션 3000만원)에 페퍼 유니폼을 입은 이고은은 김형실 감독이 추구하는 스피드 배구의 중심축이기도 하다.

페퍼스가 외국인 선수 트라이아웃 1순위로 지명한 니아 리드는 “미국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바람에

타팀 외국인선수 보다 늦게 팀에 합류했지만, 여름 내내 기술-체력훈련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준비된 상태라며 “시즌이 시작되면 100% 실력을 발휘해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리드는 신장 189cm로, 2021-2022 시즌 브라질 리그에서 득점 1위를 기록했다. 올해 FIVB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와 판 아메리칸 컵 미국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시즌 페퍼에서 뛰었던 엘리자벳(KGC인삼공사)을 능가할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몽골 출신 체렌람당 어르형(목포여상 출신)은

“많이 배워겠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고 싶다”고 루키다운 포부를 밝혔다. 대한민국 귀화 시험 때문에 화제를 모았던 어르형이 데뷔하면 여자부 V리그 국내 최장신(194.5cm) 선수로 등록된다. 우월한 체격 때문에 페퍼의 높이를 보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형실 감독은 “장래가 촉망되는 어르형은 성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어르형을 지도하면서 대한민국 대표선수를 육성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아직 어리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가

능하면 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려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언 AI페퍼스 단장은 “팀을 창단한 지난해 팬들에게 플레이백에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올해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V리그는 오는 22일 개막해 내년 3월 19일까지 진행되며 페퍼스는 오는 28일 현대건설과 홈 첫 경기를 치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홍종표 “수비 자신 있다…내년 시즌 기다려요”

군 복무 마치고 KIA에 복귀



자신감을 찾고 돌아온 ‘예비역’ 홍종표가 2023년을 기다린다.  
KIA 타이거즈는 시즌 막판 좌완 김기훈이라는 천군만마를 얻었다. 상무 야구단에서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기훈은 한층 정교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KIA 마운드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있는 부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수비는 “안정감”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홍종표는 “2루수에서 제일 많이 했고, 유격수도 나갔다. 수비에서는 자신 있다. 완전히 어려운 플레이 제외하고 내 안에, 앞으로 오는 땅볼은 실수 없이 다 잡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멀리서 KIA를 지켜보면서 간절함을 더해졌고, 기대감도 커졌다.

홍종표는 “군대에서 매일 KIA 야구를 챙겨봤다. 확실히 1년 차일 때는 유니폼이 내 것 아닌 느낌이 있었는데, 2-3년 지나니 내 팀이 전부가 된 것 같고 빨간색만 보인다”고 웃었다.

또 “입단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관중이 없었는데 1년 6개월 군대 다녀와서 무관중이 풀렸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람 많은 곳 좋아하고 사람 많을 때 나도 모르는 플레이가 나온다”며 “KIA 팬분이 정말 많은데 저기 앞에서 야구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 생각 만하고 군대에서 버텼다. 팬들 앞에서 빨리 뛰고 싶다. 당장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항상 잘 준비하고 시기가 왔을 때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9일 홈 폐막전 입장 팬들에 감독·주장, 맥북 2대·커피 1500잔 선물

‘챔피언’ 광주FC가 우승 공약을 지킨다.  
광주가 9일 오후 4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경남FC와의 홈 폐막전에서 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압도적인 질주로 최단기간 우승을 이끈 이정호 감독은 승격 선물로 맥북 2대를 준비했다. ‘주장’ 안영규는 경기장을 찾는 팬들에게 1500잔의 커피를 대접한다.

올 시즌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선물이다.

이 감독은 미디어데이 당시 “광주 시민들, 경기

장에 오신 팬을 위해 사비로 경품을 구입해 추첨을 통해 작은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승격 공약을 이야기했다.

안영규는 이날 ‘최소실점’을 언급하면서 “승격을 하게 되면 경기장에 오신 팬들께 커피차를 준비하겠다. 시즌을 보낸 유니폼과 축구화도 선물하고 싶다”고 공약을 내세웠다.

38경기에서 32실점을 하면서 ‘최소실점’ 팀인 광주는 우승으로 다이렉트 승격까지 이룬 상황. 이 감독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시즌 개막과 함께 은행에 적금을 들었다.

## 홀란, 100경기에 103골 ... 시즌 95~102골 가능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22)의 득점 페이스는 ‘레전드’ 호마우루보다도, 호나우두(이상 브라질)보다도 빨랐다.

영국 방송 스카이스포츠에서 해설가로 활동하는 제이미 캐러거와 게리 네빌은 홀란을 비롯한 유럽 주요 리그 공격수들의 득점 페이스를 비교한 자료를 만들어 4일 공개했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뛴 홀란은 2019-2020시즌 도중에 분데스리가에 입성했다. 도르트문트에서 3시즌 동안 무려 86골을 폭격했다. 올 시즌에는 잉글랜드 무대로 건너와 맨시티에서 리그 14골을 포함해 공식전 17골을 넣었다. 특히 프리미어리그(EPL) 역사상 처음으로 홈 3경기 연속 헤트트릭을 올려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홀란은 공식전 100경기를 소화하면서 103골이

나 넣었다. 경기당 1골 이상을 넣은 것이다.  
현역 선수 중에서는 이 기록에서 홀란에 대적할 공격수가 없었다.

유럽 무대를 떠나 우루과이 리그로 돌아간 루이스 수아레스(나시오날)가 잉글랜드 리버풀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59골을 넣어 현역 선수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홀란의 기록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는 48골, 해리 케인(토트넘)은 45골이었고,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역시 41골로 홀란의 기록에 턱없이 못 미쳤다.

은퇴 선수까지 비교군을 넓혀야 홀란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선수를 찾을 수 있었다.

1990년대를 풍미한 브라질 출신의 골잡이 호마리우가 100경기 만에 90골을 넣어 홀란에 이어 2

이 감독은 “경기장에 찾아오는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힘을 내고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감독으로서 팬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팬들을 위한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모이겠다”고 밝혔다.

1500잔의 커피를 준비한 안영규는 “역대 최단기간 우승과 1부리그 승격을 이루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폐막전에 우승 세리머니를 하는데, 관중들이 많이 오셨으면 하는 바람에 선수들의 도움을 받아 커피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홈 폐막전에서 K리그2 최다승 경신에 나선다. 앞서 최다승점 기록을 새로 작성한 광주(24승 10무 4패-승점 82)는 경남전에서 승리할 경우 2017년 경남이 작성한 24승을 넘어 K리그2 최다승 신기록을 작성한다. 홈 전 구단 상대 승리 기록도 세우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홀란

위에 올랐다. 역시 브라질 출신인 호나우두가 100경기 86골로 3위에 자리했다.  
스카이스포츠는 홀란이 산술적으로 올 시즌 리그에서만 67-71골을 넣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맨시티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리그컵,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등 참가 중인 모든 대회에서 결승까지 오른다면 홀란은 총 95-102골을 넣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